



부모교육지원자료 경제관념도 습관입니다!

장승초등학교병설유치원

요즘은 꼭 돈이 아니어도 방 안 가득 채워진 장난감 등 경제적 풍요로움 속에 지내는 아이가 많습니다. 그렇다보니 ‘절제’와 ‘자제’가 유아기에 꼭 지도해야 할 중요한 인성 덕목이 되었습니다. 소비 욕구를 조절하는 것 역시 ‘습관’ 교육이므로,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.

풍족함 보다는 부족함

부모가 아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늘 풍족하게 채워주면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경향이 큼니다. 이런 경우 소비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지요. 풍족함 보다는 부족함 속에 있을 때 물건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으며, 경제관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경제 주체는 아이 자신

마트에 가서 사고 싶은 것을 구매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시기, 이맘 때 아이들은 돈에 대한 개념을 세워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시기부터는 아이가 경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자신에게 주어진 돈을 쓰느냐 저축하느냐 등 스스로 선택해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. 부모는 아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도만 개입합니다.

가정의 경제규모 공유

부모의 소비 습관에 따라 아이들은 원하는 것을 사달라고 계속 조르는 유형, 반대로 무조건 돈을 아끼는 유형으로 나뉩니다.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과 가정의 경제규모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알려주어도 괜찮습니다. 또한 이는 불필요한 소비를 할 때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.

돈의 가치

소비 욕구를 절제하는 것만 강조하면 ‘돈은 쓰지 않아야 한다’ ‘돈은 저축해야 한다’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. 올바른 경제관념은 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. 평소 아이와 마트에 가, 함께 물건을 살 때 돈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자연스럽게 알려주세요.

